

## 84장 -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1.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비치었네
2.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맘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3.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후렴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 290장 -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1.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2.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3.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후렴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8월 13일(화) 기도 담당 : 손웅열 집사

2019년 8월 12일(월)

## 이른아침예배

인도 : 고흥석 목사

예배를 여는말 ..... 인 도 자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찬 송 ..... 84장 ..... 다 같 이  
기 도 ..... 신의순 집사  
성 경 봉 독 ..... 예레미야애가 5장 1,6,15~22절 ..... 인 도 자  
찬 양 ..... 새벽찬양대  
설 교 ..... 『다시 새롭게 하사』 ..... 고흥석 목사  
기 도 .....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 다 같 이  
찬 송 ..... 290장 ..... 다 같 이  
축 도 ..... 설 교 자

### 📖 오늘의 말씀 < 예레미야애가 5장 1,6,15~22절 >

1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6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앗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  
다 15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16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  
다 17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18 시  
온 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19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  
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20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  
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21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  
적 같게 하옵소서 22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9년 8월 12일(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사함 받아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옵시고 주 안에서 평강과 기쁨으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마치 오늘 본문의 현실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시대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힘의 논리로 움직여지는 국제관계와 그로인한 경제적인 환란, 정치적 갈등과 북한과의 대립 등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붙잡히 여겨주옵소서. 피곤한 현실 가운데서도 다시 새롭게 하실 주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한 예레미야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던 이 땅에 새문안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문안교회가 더욱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여름 사역을 통해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교회 안팎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여름 사역의 남은 일정들도 은혜 안에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담임목사님의 건강을 온전케 하사 말씀과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하반기를 준비하는 교역자들과 온 제직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일제의 억압 속에서 광복의 기쁨을 주시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재건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복음으로 세우신 이 나라를 주의 손으로 붙들어주옵소서.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에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해외에서 주의 복음을 외치는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어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게 하시고,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가정과 일터에서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임마누엘의 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